



**日, 포장기계 생산 21.5% 감소**  
시장 수요 고부가가치 기종 전환

일본의 포장기계 생산이 2002년도 경제산업성 기계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1~10월 기간 중, 대수로는 전년대비 21.5% 감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7.5% 감소했다.

대부분의 기종이 마이너스를 보인 가운데 병포장기계는 대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7.5% 증가했으며 금액기준 31.6%가 증가, 호조를 보였다. 여타 품목의 경우 금액기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 진공포장기 5.1% 감소, 외장·포장기계 9.4% 감소, 통조림포장기 10.8% 감소, 용기성형 충전기 12.1% 감소, 밴드기 12.4% 감소, Sealant기 3.3% 감소, 생산

Bag 충전기 14.9%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포장기계 생산이 금액기준에 비해 수량 베이스로 큰 감소량을 보이는 것은 일본 포장기계 시장 수요가 고부가가치 기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HACCP 지원법 등을 도입함에 따라 환경대책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범용 일반 포장기계의 경우 아시아산의 수입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부문별 수요동향을 살펴보면, 식품 부문은 지난 92년도에 전체 포장기계시장의 60.3%를 차지했으며 93년도에도 불황에도 불구하고 61.8%로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95년도 이후에는 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식품부문의 경기 침체로 95년



60.7%, 98년도에는 설비투자의 감소가 겹쳐 54%로 크게 비중이 감소했다.

더욱이 99년에 들어와 불황의 영향으로 식품의 소비가 침체하고 이에 따라 식품 업계의 설비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이 부문의 비중이 51%로 바닥을 친 이후 다시 2000년에 51.9%, 2001년에 52.7%까지 회복됐다.

이와 같이 다시 식품부문의 포장기계 수요가 상승하는 주요 요인은 식품의 다양화에 수반한 다양한 포장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포장기계 수입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반면 유럽, 북미주 등 여타지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1년도의 경우 유럽지역이 전년도 대비 11% 감소한 129억엔에 그쳤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전년대비 38% 감소한 17억엔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한국, 대만 및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1억9천만엔을 기록, 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역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앞섰다.

### 뉴질랜드, 플라스틱 사출금형 산업 활발 농축산품 포장용 및 PET병 수요 높아

뉴질랜드 플라스틱 사출금형이 주력 수출품목인 농축산품의 포장용 수요와 PET병 등 음료산업용 사출 금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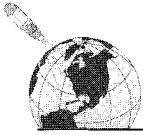
반면 자동차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청소기 등 전기전자 제품이 제조되지 않아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들 제품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오클랜드 한국무역관에서 시장 및 대한수입동향 조사를 위해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조업체인 Alto Plastics Ltd 사의 General Manager인 Mark Wheeler와 Purchasing Manager인 Ian Brotherton을 접촉한 바에 따르면 자사는 물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출에 필요한 금형 및 기계를 호주와 현지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최대 공급국이 호주가 될 수 밖에 없는 근거로 현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호주기업의 소유이거나 지사나 지점형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특히 뉴질랜드내 가장 큰 포장업체인 Amcor의 경우, 호주로부터의 수입이 연간 NZ\$4억(2억 달러)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플라스틱 사출금형제품의 수입은 매년 2억달러에 못미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뉴질랜드 국내경기 및 현지화 강세에 힘입어 수입이 급증, 6월말 현재 2002년 연간 수입실적에 필적하는 1백4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백72% 증가한 28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현지 유명 제조업체로는 Alto Plastics Ltd를 비롯, 세계 3대 포장업체로서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고 뉴질랜드에는 지사를 두고 있는



Amcor Packaging (New Zealand) Limited, 뉴질랜드내 가장 큰 PET bottle 제조업체인 TSL Plastics Ltd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식품 및 의약품용 각종 병 및 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Plastic Industries(NZ) Ltd, Premier Plastics Ltd, Aotea Plastics Industries Ltd, Blow Moulders Ltd 등도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탈리아,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소비 둔화

가계 구매 축소 및 제조업 생산 저하

올해 이탈리아 플라스틱 재료와 합성수지 소비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미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증가율은 거의 0%대에 가까운데, 이는 이탈리아 가계 구매 축소 경향과 제조업의 생산이 줄어든데 기인한다.

지난 해 플라스틱용 폴리머는 전년대비 1.4%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년 이 부문 재료의 가격 인상 전망에 따라 전년도 관련 업체들은 구매를 늘렸으며, 금년 1분기 중 원재료, 중간가공품, 가공품들의 재고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중에는 이 재고분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생산활동의 감소추세 및 경제 둔화에도 이라크 전쟁에 따른 향후 공급 물량 축소를 우려, 관련 업체들은 재고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꾸준히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금년 1분기 중 플라스틱용 폴리머의 소비는

0.2% 증가했으며, 열강화액체수지는 1.3% 감소세를 보였다. 저밀도폴리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은 각각 1.3%, 1.4% 소비증가를 나타냈으며 PET의 경우 1.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건축 및 포장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자동차 -16%, 가정기기, 오디오, 비디오 -2.9%로 큰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전세계적으로 폴리머의 소비는 0.5% 증가세를 보였다.

### 日, 생체 수입소 '국산 표시' 특례재검토

수입쇠고기 원산지 최장기 사육장소 변경

일본 농수성은 외국으로부터 생체소를 수입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할 경우 '국산소'로 표시 할 수 있는 JAS 법상의 특례조치를 재검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3일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개최한 식품표시관련 회의에서는 현행 규정상 대합이나 뱀장어 등의 신선식품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제기, 이를 동일한 규정으로 바꿀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합이나 뱀장어가 생체인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가장 사육기간이 긴 장소를 원산지로서 표시하는 룰이 JAS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소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태어나 27개월간 기른 후 일본에 수입돼도 일본 국내에서 3개월 이상만 사육하면, '국산'으로 표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허용돼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국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현재 지역에 따라 명품 쇠고기의 경우 값이 몇 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명품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각기 다른 점도 논의돼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칫 불신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원산지 표시를 통일화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친환경 옥수수 플라스틱' 용기 시판**  
47일만에 완전 분해 가능

옥수수를 이용해 만든 환경친화적 플라스틱 용기가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플리타틱스 또는 PLA로 불리는 옥수수 플라스틱은 47일만에 완전 분해되고 연소시 유독연기를 방출하지 않는 등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용기는 환경 문제에 관심있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親) 환경성. 옥수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뒤 이를 수거, 적절한 공정을 거친 뒤 퇴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북미지역 식품가게 중 최초로 옥수수 플라스틱 제품을 시판한 오츠마켓츠는 올 하반기까지 90개 점포로 판매점을

늘릴 계획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오츠마켓츠 홍보담당자는 "가게 내에 옥수수 플라스틱 용기 수거함을 설치해 손님들이 가져온 옥수수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한 뒤 이를 공장에 보내 퇴비로 만들어 다시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카콜라사는 옥수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50만 개의 음료수 컵을 지난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2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사용된 컵은 퇴비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옥수수 플라스틱은 일반 매립지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며, 가정에서는 퇴비로 만들 수 없고 용기 안에 뜨거운 음식을 담고 있거나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안에 놓아뒀을 경우 녹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또 기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2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싼 점도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편 국제적 농업회사인 카길사와 다우 케미칼사는 옥수수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벤처회사를 설립했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이 벤처사의 대변인은 10년 내에 매년 10억 파운드 어치의 옥수수 플라스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獨, 품질인증 표시 식품 선호**  
품질보증시스템 60% 이상 확대

독일 농업 중앙 마케팅협회(CMA)가 독일 중앙통계소(ZMP)에 의뢰해 소비자 1천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인증 표시 부착 식품



구입 실태조사에서 14%인 1백43명은 품질인 증표시가 부착된 제품만 구입하고 있고, 조사 대상 2/3는 제품 구매 시 동 표시 부착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Fleischforum가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식품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신뢰도가 아주 낮았으나, 근래에는 신뢰도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품질검사 보증시스템 QS(Qualitat un Sicherheit)의 적용을 6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산 육류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럽의 품질인증 표시들로 화란 IKB, 덴마크 DS, 벨기에 Certus 등이 있다.

### EU, 원산지 상표사용권 보호 나서 파르마 햄 등 41개 리스트 마련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규정을 통해 '코냐' 등 특정지명을 딴 상표 사용권을 보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와인, 치즈 등 모두 41개 원산지 상표 보호 대상 리스트를 마련, 발표했다.

EU는 또 향후 원산지 상표 보호대상 제품 리스트에 6백개 품목을 추가하고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국제 원산지 상표 등록제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그레고르 크로이주버 EU 농업정책 대변인은 지난 8월 28일 특정지명이 상품의 질과 결부돼 있는 지명표시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 이를 상정,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기'로 명명된 EU 관련 리스트는 파르마 햄과 보르도 와인, 코냐, 모젤, 아시아고 등 주류와 식품 등이 포함됐다.

EU측의 이번 구상이 이행되면 파르마햄과 모젤와인 등으로 명명된 상품은 전통적인 기득권이 인정되는 유럽지역 국가들만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EU 관리들은 이번에 선정된 원산지 상표지역의 지역에서 도용되거나 모방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상표 제품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U측은 또 현재 10개 EU 가입 후보국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산지 상표도 관련 리스트에 추가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中, 식품 및 포장기계 수요 급증 육류가공비중 성장 전망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및 포장기계 시장규모가 현재 3백억 위엔에서 오는 2005년이 되면 6백50억 위엔 시장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들은 2005년에 이르면 육류가공비중이 지금의 4%에서 10%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식용 사탕, 우유제품, 각종 사료, 식용 기름, 통조림의 생산량은 각각 1천만톤, 2

백80만톤, 2천7백만톤, 3천만톤과 3백80만톤에 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식품가공 능력으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으로 국내 시장에서 식품기계와 포장설비의 연간 성장률이 12% 이상 되어야만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美, 커피캔 플라스틱으로 대체 HDPE 사용 커피용기 수요증가 예상

미국에서 스틸 커피캔이 플라스틱으로 활발히 대체되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 소재 Proctor & Gamble (P&G)의 커피 브랜드인 Folgers 부서는 새로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도입, 뉴올리언즈 커피 패키징 공장에서 사용된 39온스의 스틸캔을 대체했다.

P&G의 Global Snacks and Beverages의 Jorge Montoya 사장은 "8월초에 39온스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9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AromaSeal Canister는 결국 모든 Folgers의 스틸 커피캔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용기는 커피캔 보다 길이는 약간 짧고 폭은 넓으며, 굳게 닫히는 뚜껑과 잡기가 용이한 손잡이가 특징이다. 비용 또한 기존의 스틸 용기와 차이가 없어 커피 가격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Folgers는 13~26 온스 캔커피 패키지를 만

들고 있으나, 39온스 버전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이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커피 용기 설계는 비교적 쉽지만, 운반중의 신선도 유지·공기 차단·압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뚜껑과 특수 단방향 밸브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연구개발 부회장인 Mike Jensen은 "39온스의 크기에서 밀봉을 위해 용기와 뚜껑을 일치시키는 등 용기 제조 공차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병뚜껑이 필요없이 뚜껑을 벗겨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Folgers는 23억 달러 세계 커피 시장에서 약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이다. 지난 10년간 P&G는 Folgers 커피 사업을 위해 2억5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했으며, 현재 뉴올리언즈 공장에만 직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등의 세계 최대 커피 메이커다.

### 中, LDPE 시장 유망 對中 수출 기회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에 따라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농업용 비닐인 LDPE의 사용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중국은 농업용 비닐 생산량이 2백만톤 이상에 달한다. 또한 오는 2006년에는 LDPE에 대한 수요량이 1백8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70만톤은 수입에 의존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LDPE는 농업용 비닐 및 필름 외에도 식품 포장용 필름, 치약 또는 연고 튜브, PET 코팅, 전선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3백여개의 플라스틱 가공기업을 보유한 중국에서의 LDPE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楊巴와 南海 지역에서의 연간 수요는 각각 40만톤과 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DPE 등 합성수지를 포함한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아직 품질이 낮고 품종이 모자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합성수지 브랜드는 PE, PP, PS, PVC, ABS를 통틀어 1천여개 미만이고 실제 생산 중인 제품은 30%를 밑돌 정도로 품종이 적다.

물론 중국내 LDPE 제조업체들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의 LDPE 자급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北京燕山の 지난 해 생산량은 40만톤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는 중국 현지 기업들이 BASF, BP, ExxonMobil, Shell 등 해외 유수 업체와 손잡고 생산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LDPE의 연간 생산량이 2백7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전쟁과 사스진정세 이후 폭락했던 LDPE 가격은 6월 하순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톤당 80달러 상승하여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경기가 5월 이후 본격 회복세를 타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TRA는 “우리 기업은 중국내 수요 증가와 LDPE 국제 가격 상승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고 투명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중국의 LDPE 수입의존 국가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의 순이다

### 북한, 중국산 플라스틱 수입 늘어 플라스틱용기 전체 80%차지

북한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TRA가 13일 단둥세관을 인용해 밝힌데 따르면, 북한은 지난 상반기 단둥에서 57만달러 상당의 하우스용 비닐과 13만달러 어치의 플라스틱 용기를 수입했으며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양이다.

하우스용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는 북한이 단둥을 통해 수입하는 주요 물품으로 북한 전체 플라스틱 수입의 40%와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KOTRA는 중국의 한 대북 투자업자가 “최근 북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사의 평양공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전량을 북한 내수용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총체적으로 북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